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아무거나

1주차	일시	4 월 7 일 13 : 00 장소명: 상상파크플러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지예(2171519)	O
		이예빈(2431179)	O
		권민서(2071403)	O
		최정우(2131196)	O
		유태영(1971409)	X
	진도	도서명: 브로콜리 펀치	진도페이지: p.1 ~ p.74
	토론 내용	[이지예, 권민서, 최정우, 이예빈] 권민서: '빨간열매'에서 열매를 가르고 먹는 장면은 주인공이 죄책감을 해소하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또한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서도 죄책감의 정서가 드러나는 듯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작품 전반에 걸쳐 심리적인 갈등을 드러낸다고 해석했다. 최정우: 주인공은 겉으로는 툭툭거리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다. 죄책감보다는 가족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졌으며, 아버지를 떠올리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전체적으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보았다고 말했다. 이예빈: 이 작품은 식물이란 매개를 통해 애도의 방식이 표현된 것으로 느껴졌고, 문체가 추상적이어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무심한 딸로서의 복합적인 감정이 공존한다고 보았다. 작가가 '고민은 나누어야 절반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으며, 이야기 방식은 초자연적이고 상징적인 요	

		소가 많다고 평가했다. 이지예: '브로콜리 펀치'에서 자존감에 대한 표현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도 자존감에 대한 주제가 중요한 의미로 다뤄졌다고 강조했다. 작품이 개인의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강한 인상을 주었다고 보았다.
--	--	--

2주차	일시	5월 14일 17 : 00 장소명 상상베이스 B101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지예(2171519)	O
		이예빈(2431179)	O
		권민서(2071403)	O
		최정우(2131196)	X
		유태영(1971409)	X
	진도	도서명: 브로콜리 펀치	진도페이지: 75 p. ~ 145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권민서, 이예빈, 이지예, 김귀옥 교수님 ...]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브로콜리 펀치 책의 [브로콜리 펀치], [손톱과 그림자] 이지예: 작가가 소설을 쓸 때 초 자연적인 현성과 일상을 연결하여 소설의 방향	

		을 제시하는 것이 새로웠다. 주인공 남자친구인 원준이와 같이 현대인들은 마음 속에 응어리들을 하나씩 가지고 지내는 것이 안타까웠고, 산에서 할머니와 원준이 응어리를 푸는 장면을 통해 현대인들이 왜 응어리를 해소해야하고, 어떻게 해소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손톱과 그림자에서는 한때는 정말 사랑했지만, 이제는 보내줘야하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작가가 손톱을 매개체로 해서, 과거에는 사랑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내줘야 하는 기억들을 잘 묘사한 것 같다 이에빈: 응어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주먹이 브로콜리가 되는 것이 재밌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브로콜리 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주먹 다짐을 일로 삼는 격투선수인 원준과 대조가 되는 소재여서 작가가 그렇게 쓴게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갈등 해소를 잘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이 단편소설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안타까운 일을 어떻게 애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다.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남편과 주인공(아내)이 전남편과 사고를 당한 장소에 같이 가면서 그 기억을 생각하며 되새기고 애도를 하며 성불하는 장면인데, 어떤 방법으로 현대 사회에서 애도를 표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줬다고 생각한다, 권민서: 앵무새 말자와 원준의 브로콜리는 서로 대비된다고 생각한다. 앵무새는 할머니의 응어리를 매일 되반복하면서 풀어주는 매개체인 반면 원준의 브로콜리는 자신의 응어리를 해소하지 않는 원준의 매개체이다. 이 두가지의 매개체가 병치되어 있는 단편 소설의 구조속에서, 비교하며 재미있게 책을 읽었다. 마지막에서는 산에서 소리와 노래를 지르며 해소하는 방법이 재밌게 보였다 손톱은 매일 자라고 잘라내야 하는 신체의 가장 외곽에 있는 부분이다. 한편, 신체에서 가장 ‘무감각한’ 부위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 무감각한 곳에 용준의 영혼을 깃들게 함으로써, “지워졌다고 믿고 싶은 기억이 사실은 나의 가장 일상적인 부분에 깊이 박혀있다”는 역설을 구축했다고 생각한다
--	--	--

3주차	일시	5월 26일 13 : 00 상상파크플러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지예(2171519)	○
		이에빈(2431179)	○
		권민서(2071403)	○

		최정우(2131196)	O
		유태영(1971409)	X
	진도	도서명: 브로콜리 펀치	진도페이지: 147p. ~ 210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이예빈, 권민서, 김귀옥 교수님, 최정우, 이지예] 브로콜리 펀치의 <왜가리 클럽> 이지예: 등장인물들이 함께 도림천으로 나가서 저마다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상대적으로 실패보다 성공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게 그동안의 습관이었는데, 왜가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성공과 실패에 같은 무게를 두듯이,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실패 후 극복이 어려운 이유는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고 그것을 계속 곱씹는 데에 이유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설에서 묘사된 왜가리의 마인드를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최정우: 주인공 '양미'는 장사에 실패한 후 왜가리를 보고 힐링을 받는다. 실패엔 일반적으로 두려운 이미지가 있고,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편인데, 그래서인지 주인공 '양미'가 왜가리를 보면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는 모습이 힐링되었고, 또 언젠가 이런 경험을 같이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책에 수록된 소설들이 판타지처럼 신기한 내용들이 많았던 가운데 <왜가리 클럽>만큼은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여서 읽기 편했다. 권민서: 앞서 말씀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현실적인 내용의 소설이라 장면을 연상하며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들이라 편하게 읽었다.	

		이예빈: 소설을 쓸 때 저자가 염두에 둔 부분이 등장인물의 서사나 묘사인지, 메시지인지에 따라 소설의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왜가리 클럽>의 메시지 또한 좋다고 생각한다. 브로콜리 펀치의 '치즈 달과 비스코티' 권민서: 소설의 제목에서 '비스코티'의 뜻이 뭔지 생소했던 기억이 난다. 소설은 돌과 대화하는 정신병자인 주인공이 치료를 받으면서 치즈로 만들어진 달로 날아간다고 주장하는 다른 정신병자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다가 주인공이 소통했던 정신병자가 달로 날아가는 걸 봄과 동시에, 그동안 그가 애지중지했던 돌이 주인공의 말에 대답을 안 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 장면을 열린 결말로 봐야 하는지, 또 그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지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이예빈: 주인공이 대화한다고 생각했던 돌은 분열되었던 주인공의 또 다른 자아였다는 생각이 든다. 돌과 대화하게 된 시초가 주인공이 당했던 학교폭력에 대항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즈 달에 간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정신병자를 보기 전까지 오직 자신의 분열된 자아하고만 소통하다가, 또 다른 정신병자가 달로 가는 걸 진짜로 목격하고,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한 게 틀렸음을 알게 됨으로써 타인과의 의미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를 계기로 분열되었던 자아가 통합된 것, 즉 그동안 대화를 나누었던 돌이 대답을 안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지예: 책에서는 삶에서 해소되지 않은 일종의 응어리를 지닌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걸 치유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 주인공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걸 보면 그 수단으로 글쓰기 치료가 나오는데, 글쓰기가 치유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최정우: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자신만의 약점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책에는 위처럼 약점을 지닌 주인공이 자신과 다른, 진짜 정신병자라고 무시했던 또 다른 정신병자로부터 어쨌든 자신을 이해한다는 말을 듣고 위로받는 듯한 장면이 나온다. 이를 보고 남들과 소통하고 위로를 받는 게 치유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	---

4주차	일시	5 월 28 일 17 : 00 장소명 상상베이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지예(2171519)	○
		이예빈(2431179)	○
		권민서(2071403)	○
		최정우(2131196)	○
		유태영(1971409)	X

	진도	도서명: 브로콜리 펀치	진도페이지: 211 p. ~ 275 p.
	토론 내용	[이지예, 이예빈, 권민서, 최정우] 이지예: "투명인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평평하다"*라는 문장을 통해 주인공이 겪었을 고통이 더욱 실감되었다. '평평한 세계'를 왜 '투명'이나 '반투명'으로 표현하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어려웠지만, 읽을수록 그것이 은유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다가왔다. 특히 브로콜리나 이구아나와 같은 낯선 소재의등장이 인상적이었다. *"안전해 보이던 발밑이 낭떠러지였다" 는 표현에서는 나 역시 대학교 편입 당시 느꼈던 불안과 혼란이 떠올라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나만 도태되고 있다'는 감정을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에 더욱 마음에 와닿았다. 권민서: 『평평한 세계』는 가정폭력을 다루는 이야기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인공이 평평한 현관문에 누워 편안함을 느끼는 장면이 안타까웠다. 새엄마가 사과하려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이를 막고 결국 두 사람이 투명하게 합쳐지는 장면은 '용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수용'처럼 느껴졌다. 『이구아나와 나』에서는 주인공과 이구아나의 이름이 끝까지 등장하지 않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는 주인공이 이구아나를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장면을 보며 영화 <i>굿 윌 헌팅</i>이 떠올랐다. 이예빈: 『평평한 세계』는 등장인물이 주인공과 새엄마 단 두 명인데, 투명해지기 전에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투명해진 순간부터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는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느꼈다. 『이구아나와 나』는 가장 재미있게 읽은 단편이었다. 주인공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갑자기 이구아나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설정이 흥미로웠고, 마지막에 이구아나가 엽서를 보내고 멕시코로 떠나는 장면이 동화처럼 느껴져 인상 깊었다. 최정우: 『평평한 세계』에서 주인공과 새엄마는 평평해지기 전까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평평해진 뒤에는 서로 공감하고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로 변화했다. 마지막에 두 사람이 투명인간으로 합쳐졌다는 묘사는 그들의 관계 회복을 잘 보여준다. 『이구아나와 나』에서는 친구가 주인공에게 "언제까지 수영을 할 거냐" 고 묻는 장면이, 현재 취업 준비 중인 내 상황과 겹쳐져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다. 전반적으로 이 책은 이구아나라는 존재를 통해 위로받는 이야기로 느껴졌고, 나에게도 그런 위안이 되었다.
--	--	--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이지예 (2171519)	소설을 평소에 잘 안 읽는데 이번 기회에 재밌는 소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2	이에빈 (2431179)	요즘 책에 손이 잘 가지 않아 새로운 작품을 접할 계기가 없었는데, 이번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 '브로콜리 펀치' 소설집에 실린 여러 단편소설을 읽으면서 일상에선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의 전환을 소설을 통해 만날 수 있어 뜻깊었다. 특히 소설집의 마지막 작품 '이구아나와 나'는 정말 재밌게 읽어서 이번 독서클럽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아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만나가고 싶다.
	3	권민서 (2071403)	브로콜리펀치 책을 읽으면서 다른 분들과 내용을 토론한다는게 재미있었다. 내용을 이분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분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평소 책을 잘 읽지않지만 이런 기회로 읽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4	최정우 (2131196)	이번 기회를 통해 단순히 책을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며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다. 특히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
	5	유태영 (1971409)	